

(제4편) EU 그린딜(Green Deal)과 농식품 부문의 영향¹⁾

임송수(고려대학교 교수)²⁾

1. 서론

2019년 12월 11일에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발표한 그린딜에 관한 연락문(Communication on the European Green Deal)은 EU를 2050년까지 세계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EC, 2019).³⁾ 그린딜은 기후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환경 측면을 고려하고 EU를 위한 새로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그린딜은 다양한 전략 안에서 자세히 기술한 10대 핵심 활동의 형태로 로드맵을 정의한다. 이 틀 안에서 집행위원회가 2020년 초반에 발표한 “농장에서 포크까지 전략(Farm to Fork Strategy: F2FS)”은 농업 정책을 새롭게 하고 공정하고 건강하며 환경친화적인 농식품 체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이바지할 기회로 간주한다(EP, 2020b).

이 새로운 정책 방향은 차기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과 연결해 살펴볼 수 있다. 그린딜이 농업부문의 전략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원래 CAP은 2021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 결정의 지연으로 신규 CAP는 2년가량 전환기를 거쳐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6월

1) 이 글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의뢰하여 프랑스의 연구기관인 INRAE와 AgroParisTech이 발표한 보고서(INRAE, 2020)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되, 추가 자료를 더하여 서술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2) songsoo@korea.ac.kr

3) 그린딜에 관한 한글 자료로는 이혜경(2020)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등이 있다.

에 집행위원회가 미래 CAP에 관한 입법 제안을 제시한 후 CA와 EP의 틀 안에서 해당 제안서가 광범위하게 논의되었다. 2020년 10월 21일에 EU 농업이사회(Council of Agriculture Ministers)는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로써 3개 법률안에 관한 개정안을 채택하였다.⁴⁾ 이를 후인 2020년 10월 23일에 유럽의회도 CAP 안을 결의하였으나, 다른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와 농업이사회 및 집행위원회가 이른바 삼자논의(trilogues)를 진행하고 있다.⁵⁾

이러한 협상의 결과는 예단하기 이르다. 예를 들면, CAP의 첫 번째 기둥(1st pillar) 내에서 기후와 환경 관련 정책 개입에 최종적으로 할당되는 용도 제한적 예산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기 집행위원회의 2개 신규 제안, 곧 새로운 기후 및 환경 수단인 생태 조치(eco-schemes)와 CAP에 대한 새로운 전달 모형(New Delivery Model: NDM)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친환경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EU 그린딜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린딜이 농식품 부문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그린딜(Green Deal)의 주요 내용

EC가 제시한 다양한 그린딜 계획이 농식품 분야와 관련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인다. 특히 기후에 관한 다수의 연락문(communications)이 관계되는데, “2030 EU 생물 다양성 전략(EU Biodiversity Strategy for 2030)”, F2FS, “EU 바이오 경제 전략(EU Bio-economy Strategy)” 등이다.

그린딜은 현세대의 요구 과제인 기후와 환경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EU 경제의 전환을 위해 EC는 10대 핵심 조치의 형태로 청사진을 정의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일련의 의욕적인 목표와 EU의 농식품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제안이 포함된다. 그 일부는 2020년 이후 CAP에 관해 제안된 조항의 변경을 요구한다.

4) 가중다수결은 EU 각료회의의 주된 의사결정 방식으로 모든 EU 법의 80% 정도가 이 절차를 따른다. 가중다수결은 각 회원국의 인구나 영향력에 따라 할당된 투표수를 합산하여 가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집행위원회(EC)가 제안한 법안에 대해 가결할 경우(EC의 제안법안이 아닌 경우) 가중다수결은, ① 회원국 55%(72%)의 찬성-이는 실질적으로 27개국 중 15개국이 찬성하는 것, ② 최소한 EU 전체 인구의 65%(65%)가 찬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회원국이 취할 수 있는 소수 저지선(blocking minority) 원칙도 존재하는데, EU 전체 인구의 35% 이상이어야 한다.

5) EU 입법과정에서 삼자논의(trilogues)은 EP, CA, EC 간 일련의 비공식 협상을 말하는데, 신속한 입법을 위한 방편으로 추진한다. 보통 그 협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지만, CAP을 결정하는 당사자 간 논의란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린딜에 관한 EC 연락문은 EC가 2020년 5월 20일에 발표한 F2FS를 위한 특별한 틀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린딜의 다른 구성 요소도 농식품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기후계획(Climate Ambition Plan), 2030년 EU 생물 다양성 전략, 순환경제 실행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 삼림 벌채 없는 가치 사슬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 조치, 물과 공기 및 토양에 관한 오염제로 행동 계획(Zero Pollution Action Plan)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모든 계획에는 농식품 산업과 기타 바이오 기반 산업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2.1. 그린딜의 기후정책

2050년까지 EU는 기후 중립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는 기후 변화에 관한 유럽의회의 결의안(2019년 3월 14일)과 유럽이사회의 결론(2019년 12월 12일)을 통해 지지한 목표이다. 2030년과 2050년에 EU의 기후 야망을 증가하기 위한 첫 번째 핵심 조치로 그린딜이 2050년 기후 중립을 지정한 것이다. 그린딜에 따른 기후 행동 계획에는, ① 2050년 기후 중립 목표를 EU 법률에 포함하기 위해 기안한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과, ② 기후 행동에 시민과 사회 모든 부분의 참여를 목표로 하는 유럽 기후협약(European Climate Pact: ECP)이 포함된다.

기후법안은 유럽의 경제와 사회가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이 되도록 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 제안된 법률은 다음 사항을 제시하였다.

- ①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에 따라 이산화탄소(CO₂)뿐만 아니라 모든 온실가스(GHG)의 제거와 배출 간 균형
- ② 상세한 기간과 일련의 진행 평가를 통한 GHG 배출감축 궤적의 정의
- ③ 완화 노력과 더불어 적응 전략(Adaptation Strategy)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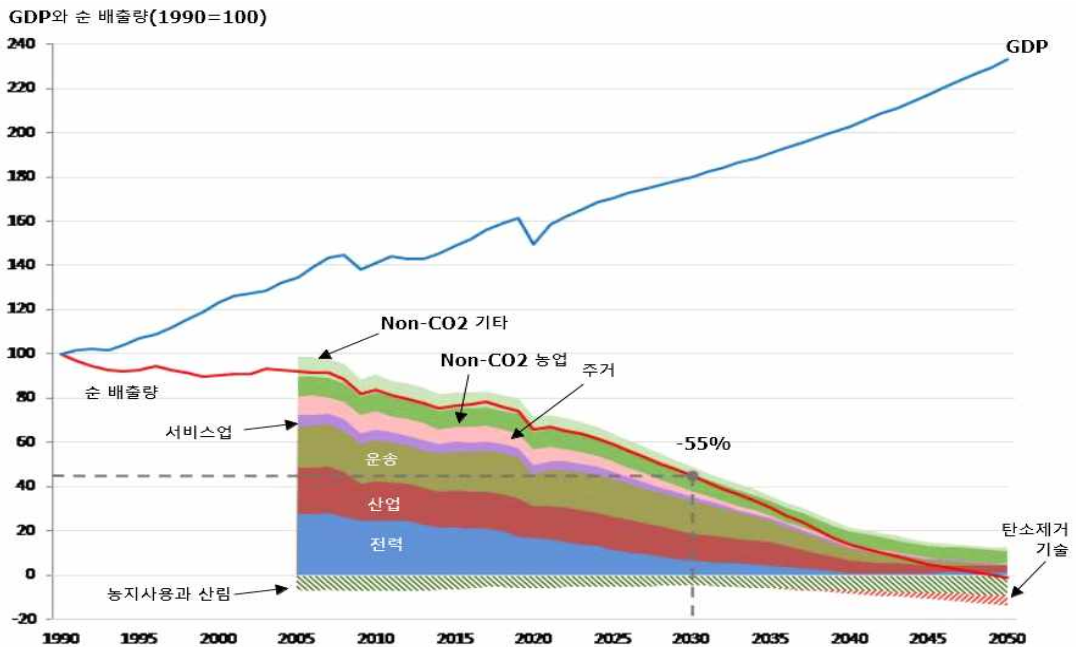
2020년 9월에 EC 위원장(von der Leyen)은 제안된 해당 목표는 1990년 기준치와 비교하여 2030년까지 GHG 배출량을 55%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그림 1 참조). 기후 목표 계획(Climate Target Plan)에 관한 EC의 제안은 새로운 부문이 포함된 더욱 광범위한 유럽 배출권 거래제도(European Emissions Trading Scheme: ETS)를 포함한다(표 1 참조).⁶⁾ 또한, ETS에 포함되지 않은 부문에 대해서는 2021~30년에 회원국 MS에 대한 구속력 있는 연

6) EU ETS는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 거래체제로 2005년부터 공식으로 출범하였다. 세계 전체 거래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정부와 금융기관 및 개인 등 모든 주체가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간 GHG 배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곧, ETS 이외 부문은 운송, 건물, 농업, 폐기물 등이다.

참고로 <그림 2>는 ETS 탄소시장 가격의 동향을 나타낸다. 한 단위 EUA(EU Allowance futures contracts)는 1톤의 이산화탄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아산화질소(N₂O)나 과불화탄소(PFCs)의 배출권을 나타낸다. 2020년 11월 30일에 최고 수준인 29유로를 기록하였다.

<그림 1> EU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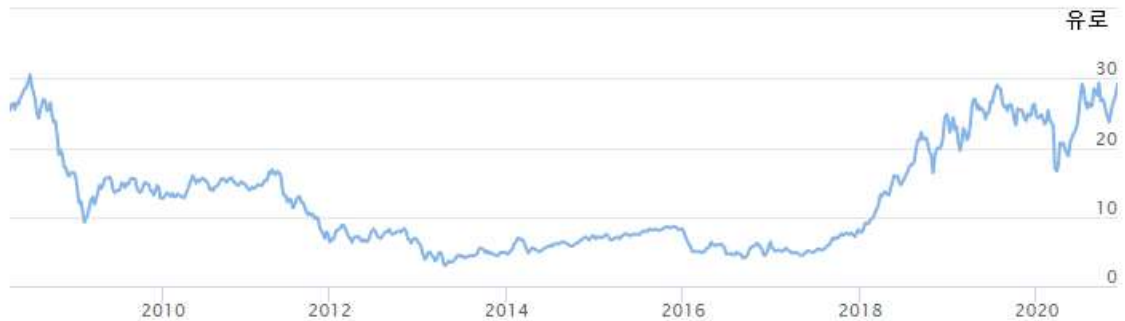
주: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안은 기존의 40% 감축 목표보다 높은 수준임.
 자료: EC(2020c)

<표 1> EU GHG 배출권 거래제 대상 부문

온실가스	대상 부문
이산화탄소(CO 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과 열 발전 · 에너지 집약산업(정유와 금속 및 철, 알루미늄, 시멘트, 유리, 세라믹, 라임(lime), 펄프, 종이, 카드보드, 산(acids), 유기화합물 생산) · 상업비행(항공부문의 경우 2023년까지 ETS는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에 위치한 공항 간 비행에 한해 적용)
아산화질소(N ₂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산(nitric acid), 아디프산(adipic acid), 글리옥실산(glyoxylic acid), 글리옥살(glyoxal) 생산
과불화탄소(PF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루미늄 생산

자료: EU(https://ec.europa.eu/clima/policies/ets_en)

<그림 2> EU ETS에서 EUA 가격 추이



자료: EMBER(<https://ember-climate.org/data/carbon-price-viewer>)

유럽 기후협약(ECP)은 2020년 말에 시작되었다. 이해 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광범위한 사회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기후 변화 적응에 관한 EU 전략은 2021년에 정의될 예정이다. 그 주요 목표는 기업과 도시 및 시민이 그들의 위험 관리방식에 기후 변화를 통합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농업부문은 이러한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2. 2030년 EU 생물 다양성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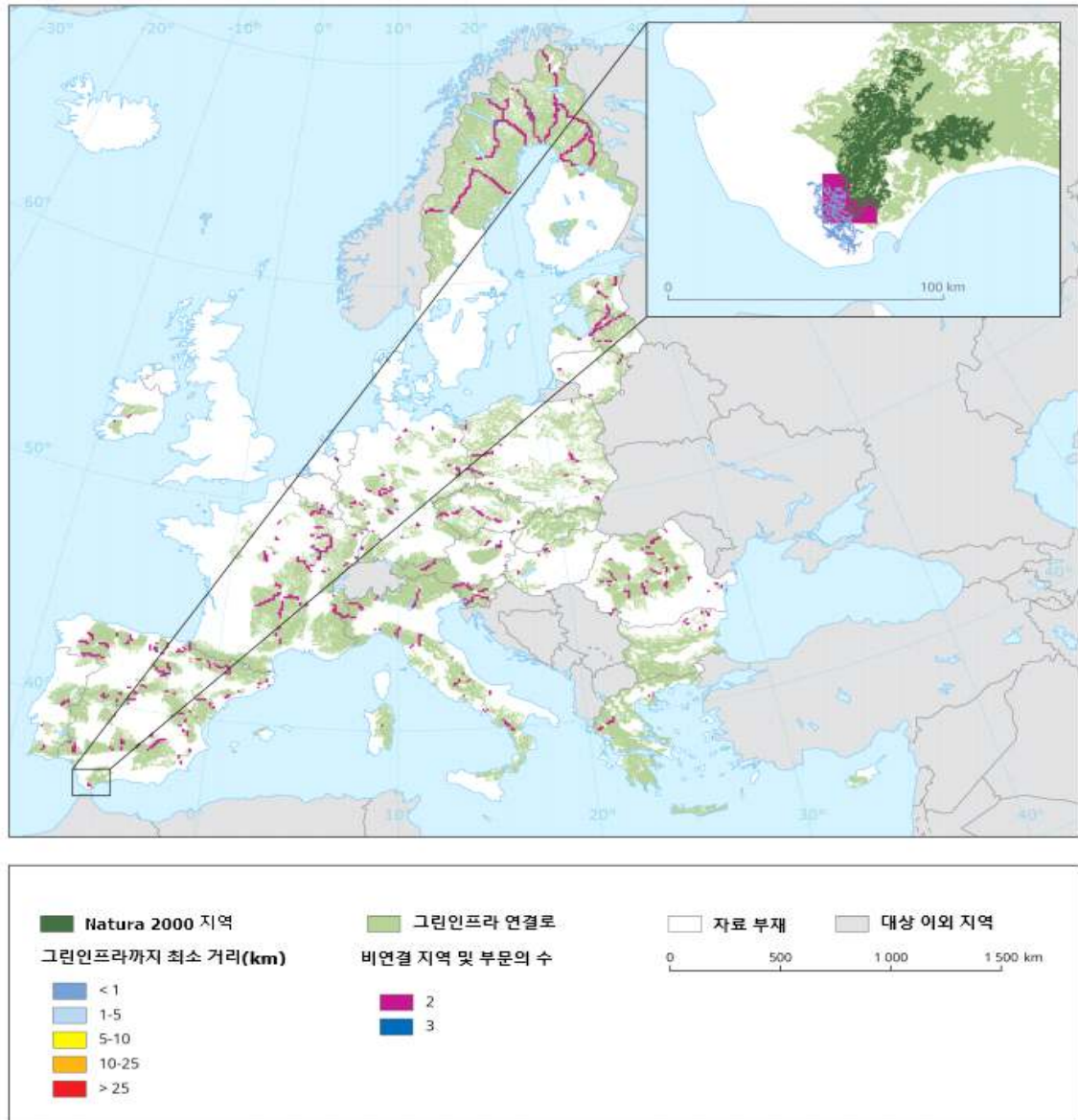
자연을 우리 삶으로 되돌려주는 것으로서 2030년 EU 생물 다양성 전략(EU Biodiversity Strategy for 2030)은 생물 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의 심각성과 무대응의 비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유럽 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ECA)가 EU의 생물 다양성에 관한 이전 조치가 별다른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비판한 뒤에 나타났다.

생물 다양성 전략이 제시한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 ① EU 육지 면적의 최소 30%와 EU 해역의 30%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진정한 유럽 횡단 자연 네트워크(Trans-European Nature Network)의 일부로 생태 통로를 통합(그림 3 참조)⁷⁾
- ② 남아있는 모든 EU 기본 및 노후 성장 산림을 포함하여 EU 보호 지역의 최소 1/3을 엄격하게 보호

7) EU는 생물 다양성 관련 “중과 서식지 보호를 위한 조류 지침(Directive 2009/147/EC)” 과 “서식지 지침(Habitats Directive 92/43/EEC)” 을 시행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특별 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이른바 Natura 2000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정혁, 2019).

<그림 3> Natura 2000 지역을 연결하는 그린인프라(GI) 네트워크



주: Natura 2000 지역의 80%가량은 수목과 산림으로 되어 있음.

자료: EEA(2020)

- ③ 명확한 보존 목표와 조치를 정의하고 적절하게 관측하여 모든 보호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
- ④ 영향 평가에 따라 2021년에 제안될 예정인 법적 구속력이 있는 2030년까지 EU 자연 복원 목표를 정의
 - 훼손되었거나 탄소가 풍부한 생태서식지의 복원
 - 서식지와 종이 보전 경향과 상태 특면에서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
 - 최소 30%는 호전된 보전 상태에 도달하거나 적어도 긍정적인 추세 보이도록 관리

- ③ 꽃가루 매개자(pollinator)의 감소세 역전
- ④ 화학 살충제의 사용과 위험을 2030년에 50%까지 줄이고 더 위험한 살충제의 사용을 2030년에 50%까지 감축
- ⑤ 농경지의 최소 10%를 다양성이 높은 경관으로 지정
- ⑥ 2030년까지 유기 농업 관리 아래 농지의 25% 이상을 지정하고 농생태(agro-ecological) 방식의 채택률을 크게 증대
- ⑦ 2030년에는 비료로 인한 영양소 손실을 50% 줄임으로써 전체 비료 사용량을 최소 20% 감축

이 밖에도 식목, 오염된 토양 부지, 강, 외래종, 도시 기반시설, 채굴산업 등에 초점을 맞춘 기타 조치들이 있다. 예를 들면, 생태원칙에 충실한 방식으로 30억 그루의 식재, 25,000km의 강 복원, 외래종에 의해 위협받는 종의 수를 50% 감축, 민감지역에 화학농약 사용 금지 등이다. 2021년 초에 발표될 새로운 EU 산림 전략(EU Forest Strategy)도 생물 다양성 실행계획의 일부로 언급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2.3. 농장에서 포크까지 전략(F2FS)

F2FS는 농식품에 특히 중요한 두 번째 전략이다. 이는 유럽의 농식품 체계가 그린딜의 글로벌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곧 기후 중립, 천연자원 및 생물 다양성의 복원, 식량 안보와 건강 등이다. F2FS는 특정 양적 목표와 함께 농식품에 관한 6대 목표를 정의하고 있다.

일부 목표는 그린딜의 다른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기후법에 있는 토지사용 GHG 배출과 농약과 비료 사용의 감축 및 2030년 EU 생물 다양성 전략 아래 유기 농업의 증대 등이다.

F2FS의 6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 보장
- ② 식량안보 보장
- ③ 식품 가공, 소매, 접대(hospitality), 식품 서비스 등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의 촉진
- ④ 지속 가능한 식품 소비를 증진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로 전환을 촉진

- ⑤ 식품 손실과 폐기물 감축
- ⑥ 식품 체인에서 식품사기와 전쟁

지속 가능한 농식품 체제로 전환은 식품 가치 사슬 상 모두 주체의 관심 사항이어야 한다. 농가는 이러한 전환 관리과정에서 필수적이며, 미래 CAP의 국가전략계획(national strategic plans: NSP)는 특히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지원함으로써 F2FS의 야망을 반영해야 한다. 순환 경제 원칙도 개발해야 한다. 끝으로, 지속 가능한 식품 소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F2FS는 연구와 혁신, 투자와 금융, 포괄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다단계 참여, 자문 서비스, 효율적인 관측 과정 등 전환에 유용한 수단들을 강조하고 있다.

2.4. 기타 항목

그린딜 연락문의 몇 가지 항목은 특히 청정하고 값싸며 안전한 에너지 공급과 청정 및 순환경제를 위한 기동성 있는 산업을 목표로 한 2대 조치를 통해 바이오 경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재생 가능 에너지의 귀중한 원천으로서 농업용 바이오매스와 생화학 및 생체 재료를 위한 탄소 중립적 투입 요소를 목표로 한다. 이는 “재생 가능한 경제 지침(Renewable Economy Directive)” 과 “에너지 효율 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 의 개정을 포함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그린딜 의제의 블록 중 하나는 청정 및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 전략의 일부인 새로운 순환경제 실행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이다. 이 실행계획은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에 대한 계획, 순환경제 절차의 촉진, 지속 가능한 소비의 촉진 등을 포함한다. 순환경제 실행계획에 따라 순환경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식량체제 달성이라는 F2FS 목표와 일치한다. 식품 부문의 순환경제와 명시적으로 관련된 항목은 F2FS의 목표 중 식품 손실과 폐기물 감축에 해당한다. 더욱 보편적인 제안들은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의 폐기물 감소와 더 환경친화적인 포장과 관련한 산업 전략(Industrial Strategy)에 포함된다.

무역 문제에서 그린딜은 탄소 국경조정체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또한, 무역상대국에서 더욱 지속 가능한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 협력과 행동 개발을 제안한다.

2019년 12월 18일에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와 유럽의회(EP)는 EU 분류(EU Taxonomy)로 더 알려진 “녹색 목록(green list)”을 생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EU 분류는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위한 EU 전체 분류체제이다. 이는 대출과 자본 흐름을 지속 가능한 투자로 유도하고 위장한 환경주의(greenwashing)를 방지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그린딜 목표와 밀접하게 관련된 6대 환경 목표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제 활동에 관한 4대 요구 사항이 포함된다.

EC는 이 녹색 목록 또는 분류 체계 덕분에 투자자와 업계가 처음으로 그린딜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고, 이로써 지속 가능한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는 유럽의 그린딜이 실체가 되도록 만드는 데 중요하다. 일부 조항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되고 나머지는 그 1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3. 농식품 부문과 연계한 그린딜의 내용

앞에서 소개한 그린딜은 매우 야심차고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여기엔 식품 가치 사슬 상 모든 운영자와 관련된 지속 가능한 농식품 체제로 전환을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농가는 비료, 살충제, 항생제 등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식품 산업은 순환경제 원칙을 개발해야 하며 더욱 일반적으로 지속 가능한 식품소비 모형을 장려해야 한다.

<표 2>는 농식품 부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그린딜의 핵심 행동 로드맵을 정리한 것이다. 이는 농식품 부문의 문제가 F2FS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2030년 EU 생물 다양성 전략과 관련한 제안도 농업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기후 목표와 관련된 제안도 영농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들도 마찬가지로 탄소저장과 에너지 공급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표 2>가 나열한 모든 항목이 농식품 정책의 수단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그린딜의 야심 찬 목표는 특히 농식품에 관한 EC의 다양한 연락문과 문서가 제안한 내용에 따라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질문의 부류는 그린딜 제안서의 다양한 구성 요소가 전반적으로 일관성을 가지는지에 관한 것이다.

둘째, 미래 CAP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인 제안과 일치하는 그린딜의 측면이 농업과 식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한 일련의 질문이다. 이에 따라 미래 CAP에 관한 제안서와 관련하여 그린딜 제안서를 다뤄야 할 것이다. 회원국의 NSP와 CAP의 환경 도구, 곧 조건부 요건, 제1축(pillar 1)의 환경 계획 (eco-schemes), 제2축(pillar 2)의 기후와 환경과 관련한 정책 개입이 기후와 환경 목표와 관련한 그린딜의 목표를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하는지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

<표 2> 그린딜(Green Deal) 로드맵에서 농식품 부문의 영향 관련 항목

행동 로드맵 항목	농식품 정책의 중요도	
① 기후 목표		
2050년 기후 중립 목표를 담은 유럽 기후법(Climate Law) 제안서(2020년 3월)	농업 GHG 배출량 측면의 의미(주로 메탄과 아산화질소)	++
EU 2030 기후 목표를 최소한 50%로 높이고 가능한 한 55%로 확대하려는 종합 계획(2020년 여름)		++
미래 기후 중립에 투자하는 EU 2030 기후 야망의 증대	·2015~30년에 메탄과 아산화질소 등 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35% 감소 ·토지사용과 토지사용 변화 및 산림(LULUCF) 탄소 흡수대(carbon sink)의 내림세 정지와 반전	+++
증가한 기후 야망의 실현을 위한 관련 법적 조치 개정에 관한 제안서로 다음을 검토(2021년 6월) ·배출권 거래제도 규약(ETS Directive) ·노력공유규정(Effort Sharing Regulation) ·LULUCF ·에너지 효율성 규약(Energy Efficiency Directive) ·재생 가능한 에너지 규약(Renewable Energy Directive) ·자동차를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성과 기준	·LULUCF 규정은 농지 사용 효과와 더불어 토지사용 정책에 영향을 미쳐야 함. ·재생 가능한 에너지 규약은 EU가 농산물로부터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데 핵심임.	++
에너지 조세 규약(Energy Taxation Directive)에 관한 개정 제안서(2021년 6월)	n/a	n/a
해당 부문의 탄소 국경조정 체계에 관한 제안서(2021년)	농식품에 관한 경쟁 왜곡을 감소시킬 수 있음.	+

행동 로드맵 항목	농식품 정책의 중요도	
기후 변화 적응에 관한 새로운 EU 전략(New EU Strategy on Adaptation on Climate Change)(2020/21년)	·농가의 기후변화 적응에 도움을 주는 CAP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식품 섭취에 따른 탄소 발자취 감소를 목표로 하는 식량 정책 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② 청정하고 값싸며 보장된 에너지		
최종 국가 에너지 및 기후계획의 평가(2020년 6월)	n/a	n/a
스마트 부문 통합 전략(Strategic for Smart Sector Integration)(2020년)	농업은 다른 활동부문에 있어 원료의 탄소 함량을 감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건축부문을 위한 혁신 물결 (innovation wave) 계획	n/a	n/a
유럽 횡단 네트워크(Trans-European Network)-에너지 규정(Energy Regulation)의 평가(2020년)	n/a	n/a
해안 풍력 전략(Strategic on Off-Shore Wind)(2020년)	n/a	n/a
③ 청정 및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 전략		
EU 산업전략(EU Industrial Strategy)(2020년 3월)	식량 생산은 물 스트레스와 생물 다양성 손실의 원천으로 인용하였고 이에 따라 목표로 제시함.	+
지속 가능한 상품 계획과 섬유, 건설, 전자, 플라스틱 등 자원 집약적 부문에 관한 특별한 초점을 포함한 순환경제 행동 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2020년 3월)	·농업은 다른 활동부문의 환경 발자취 감소에 역할을 할 수 있음. ·식품 부문에서 그린 이의제기 (green claim)에 관한 규정	+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부문에서 기후 중립과 순환제품을 위한 주요 시장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2020년부터)	농업 바이오매스의 공급을 통한 농업에 관한 우려	+
2030년까지 카본 제로(0) 강철 제조 과정의 지원에 관한 제안서(2020년)	n/a	n/a
배터리에 관한 전략적 행동 계획 (Strategic Action Plan on Batteries)을 지원하는 배터리 관련 입법과 순환경제(2020년 10월)	n/a	n/a
폐기물과 손실에 관한 입법 제안서 (2020년부터)	·포장 감축을 목표로 하는 산업 중 식품 산업 ·전체 식품체인을 위한 폐기물 감축 조치의 잠재적 영향 ·농산물의 잠재적 출구로서 바이오 상품	+

행동 로드맵 항목	농식품 정책의 중요도	
④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이동성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이동성 전략(Strategy for Sustainable and Smart Mobility)(2020년)	n/a	n/a
대체 연료 인프라 일환의 공공 재충전 및 재급유 지점 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조달 요청(2020년부터)	n/a	n/a
다른 운송 형태를 위한 지속 가능한 대체 연료의 생산과 공급을 증진하는 입법 대안의 평가(2020년부터)	농업부문을 위한 출구로써 대체 연료(사탕무, 곡물, 유지 종자, 농산림, 전용 식물 등)	++
연합 운송 규약을 위한 개정 제안서(Directive on Combined Transport)(2021년)	n/a	n/a
대체 연료 인프라 규약(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Directive)과 유럽 횡단 네트워크 운송 규정(Trans-European Network-Transport Regulation)의 검토(2021년)	n/a	n/a
육로와 육상 수로의 능력 제고와 더 나은 관리를 위한 계획(2021년부터)	n/a	n/a
연소 엔진 자동차를 위한 더욱 엄격한 대기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제안서(2021년)	·첨가제로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의 역할 ·농업 바이오가스 개발	+
⑤ CAP 녹색화(greening)/F2FS		
유럽 그린딜과 F2FS를 인용한 국가 전략적 계획 초안의 검토(2020~21년)	농업과 CAP에 미치는 대규모 직접 효과	+++
F2FS		+++
화학 농약과 비료 및 항생제 사용과 위험을 큰 폭으로 줄이는 법안 등의 조치(2020~21년)		+++
⑥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보호		
2030년 EU 생물 다양성 전략(EU Biodiversity Strategy)(2020년 5월)	주로 잠재적 농지 사용 변화를 통해 농업과 CAP에 미치는 대규모 직접 효과	+++
생물 다양성 손실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에 관한 조치	농업과 CAP에 미치는 대규모 직접 효과	+++
신규 EU 산림 전략(New EU Forest Strategy)(2020년)	토지사용, 농업방식, 농업 정책 수단의 변화와 연계	++

행동 로드맵 항목	농식품 정책의 중요도	
삼림 벌채가 없는 가치 사슬을 지원하는 조치(2020년부터)	EU의 대두, 팜오일, 소고기 등의 수입 변화를 통한 농식품에 영향	+
독성 없는 환경을 위한 오염 제로 야망의 추구	농약, 비료, 항생제 등의 농업용 사용에 영향	+++
지속 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2020년 여름)	식품 체인에서 화학제(비료, 농약, 항생제 등)의 사용에 영향	+
물과 대기 및 토양을 위한 오염 제도 행동 계획(Zero Pollution Action Plan)(2021년)	농업에서 화학 투입제(비료, 농약, 항생제 등) 사용에 미치는 큰 영향	+++
대규모 산업용 시설로부터 나타나는 오염을 다루는 조치의 개정(2021년)	대규모 농가와 식품산업 공장에 영향	+
⑦ 모든 EU 정책에서 지속 가능성의 주류화		
공정 전환자금과 지속 가능한 유럽 투자계획을 포함한 공정 전환제도(Just Transition Mechanism)에 관한 제안서(2020년 1월)	·농촌지역에 잠재적 영향 ·식품 체인의 투자에 잠재적 영향 (green investment)	+
쇄신한 지속 가능한 금융전략(Renewed Sustainable Finance Strategy)(2020년 가을)	식품 부문에 영향	+
회원국과 EU의 녹색 예산 방식의 관측과 기준(benchmark) 계획(2020년부터)	농식품 부문에 영향 (green investment)	+
환경 및 에너지 정부 지원 지침을 포함한 관련 정부 지원 지침의 검토(2021년)	n/a	n/a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그린딜 목적의 모든 신규 EC 계획의 조정(2021년)	유럽 혁신 동반관계(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에 영향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Sustainability: EIP-AGRI) (Agricultural Knowledge and Information System: AKIS)	+
그린딜의 효과성 전달을 감소시키는 불일치 법안의 확인 및 수정하기 위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2020년부터)	n/a	n/a
ES(European Semester)의 SDG 통합(2020년부터)	n/a	n/a
⑧ 글로벌 리더로서 EU		
국제 정책 틀을 강화하면서 EU가 세계 기후 및 생물 다양성 협상을 계속 주도(2019년부터)	n/a	n/a
회원국과 협력하여 EU 그린딜 외교의 강화(2020년부터)	무역상대국과 협상에다 수입한 삼림 벌채에 관한 심각한 실행이 포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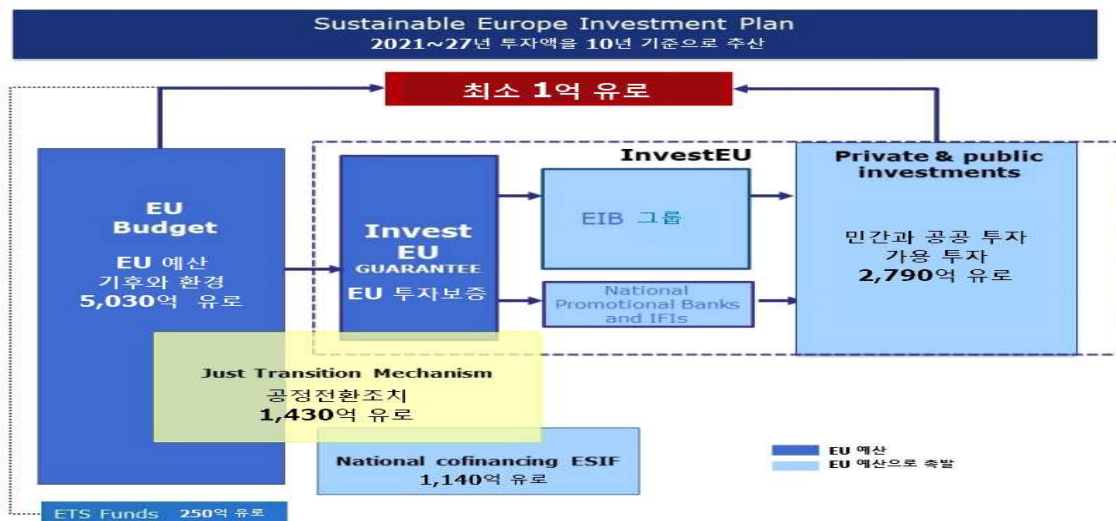
행동 로드맵 항목	농식품 정책의 중요도	
	되고, 무역협정이 기후와 환경, 건강, 사회적 문제에 관한 강력한 의무를 포함할 경우 농식품에 영향	
상대국이 양립 가능한 실행과 정책을 위해 대응하고 보장하도록 양자간 노력	농식품 관련 기존 무역 왜곡이 이러한 방식으로 다뤄지도록 함.	+
서발칸국을 위한 그린 의제(Green Agenda)(2020년부터)	n/a	n/a
⑨ 공동 작업-유럽 기후협정(European Climate Pact)		
유럽 기후협정의 출범(2020년 3월)	농식품을 포함한 모든 부문	+
8차 기후실행프로그램(Environmental Action Program)의 제안서(2020년)	농식품을 포함한 모든 부문	+

자료: INRAE(2020)

4. 그린딜 예산

지속 가능한 유럽 투자계획(Sustainable Europe Investment Plan)은 유럽 그린딜의 투자의 축(pillar)인데, 앞으로 10년간 최소 1조 유로를 가용할 것으로 내다보인다(그림 4 참조).

<그림 4> 그린딜 예산



자료: EC(2020d)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 1조 유로를 동원하려면 EC가 제안한 EU 예산과

이에 의해 촉발된 추가 공공 및 민간 투자의 조합이 필요하다. EU 예산에 따른 기후와 환경 지출은 2021~27년의 다년 금융 틀(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을 위해 제안한 기후 주류화 목표 25%에 따라 2021~30년에 5,030억 유로를 공급할 것이다. 이는 1,140억 유로에 이르는 회원국의 공동 자금 조달을 촉발할 것이다.

EU 투자 자금(InvestEU Fund)은 자금 조달과 투자 운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EU 예산 보장(guarantee)을 제공함으로써 2021~30년에 약 2,790억 유로의 민간과 공공 기후 및 환경 관련 투자를 활용할 것이다. 어느 회원국도 뒤처지지 않게 하려는 공정전환조치(Just Transition Mechanism) 아래 EU 예산의 자금 조달, 회원국의 공동자금 조달, InvestEU 및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의 기부금이 포함되어 2021~27년에 1,000억 유로(10년간 기준으로 1,430억 유로)가 공급될 전망이다.

EU 예산의 일부는 아니지만 배출권 거래제(ETS)에 따른 탄소 허용량 경매 수입의 일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혁신 및 현대화 기금은 EU로 전환을 위해 최소 250억 유로를 제공할 것이다.

5. 시사점과 결론

EU 그린딜은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이를 기회로 삼아 EU 경제를 더욱 지속 가능한 체제로 전환하려는 정책 방향과 실행 계획을 제시한다. EU 그린딜과 비슷하게 한국도 2020년 7월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0). 한국판 뉴딜은 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 포용 사회로 도약을 기치로, ① 디지털 뉴딜, ② 그린 뉴딜, ③ 안전망 강화를 3대 축으로 하고, 재정투자(2025년까지 160조 원)와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판 뉴딜이 제시한 10대 대표과제 중 그린 뉴딜 아래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는 EU 그린딜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이 서로 협력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정명규, 2020). 그러나, 농업과 농촌 특정적 로드맵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김태완, 2020). 종합계획이 제시한 농촌의 이동통신, 인공지능 융합, 스마트 물류체계, 신재생에너지 등의 사업이 기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EU 그린딜에서 보듯이 한국의 농업과 농촌의 종합계획도 기후와 환경 및

지속가능성에 더욱 초점을 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촌 인구의 유출로 말미암은 농업 및 농촌의 지속가능성 자체의 위기에 대응하여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고, 영농방식의 혁신을 추구하며, 농촌 공간이 식량안보, 생물 다양성 보전 등 다원적 기능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하는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폭넓고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관계부처합동. 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http://t2m.kr/iyztK>)
- 김태완. 2020. 한국판 뉴딜, 농촌에서는? 농민신문, 2020년 7월 24일. (<http://t2m.kr/ll4ue>)
- 이혜경. 2020.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25호.
- 정명규. 2020. EU의 신성장 전략, ‘유럽 그린딜’. KDI 나라경제 10월호. (<http://t2m.kr/X0C3r>)
- 정 혁. 2019. 유럽연합 생물다양성 정책 발전과 Natura 2000 네트워크의 발전 방향에 관한 전망. 『유럽연구』 37(1): 71-10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 제1호 e-세계농업.
- European Commission. 2020a. Analysis of Links between CAP Reform and Green Deal.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SWD(2020) 93 final. _____ . 2020b. A Farm to Fork Strategy. COM(2020) 381 final. (<http://t2m.kr/t9a3C>)
- _____ . 2020c. Stepping up Europe’s 2030 Climate Ambition Investing in a Climate-neutral Future for the Benefit of Our People COM/2020/562 final. (<http://t2m.kr/ppjEp>)
- _____ . 2020d. Sustainable Europe Investment Plan. COM(2020) 21 final. (<http://t2m.kr/oVaff>)
- _____ . 2019. The European Green Deal. COM/2019/640 final.

(<http://t2m.kr/kpcq7>)

European Environment Agency. 2020. Building a Coherent Trans-European Nature Network. Briefing No. 05/2020. (<http://t2m.kr/PzIeF>)

European Parliament. 2020b. Transitional Provisions for Support from the EAFRD and EAGF in the Year 2021. A9-0101/123/rev. (<http://t2m.kr/JZE0d>)

INRAE. 2020. The Green Deal and the CAP: Policy Implications to Adapt Farming Practices and to Preserve the EU' s Natural Resources. PE 629.214, November 2020. (<http://t2m.kr/f92yJ>)

EU (https://ec.europa.eu/clima/policies/ets_en)

EMBER (<https://ember-climate.org/data/carbon-price-viewer>)